

설교 | “사랑합니다” (고전 13:1-7)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길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조급함을 가진다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을 받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들어오길, 죄로부터 멀어지길 바라시며,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과 자비와 함께 합니다. 사랑은 강압과 억압과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베풀이며 나눔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스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좁은 마음, 선입견, 편견이 아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한다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유의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사랑은 자랑과 교만이 아닌 겸손한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나누는 감정이기때문에, 나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날카로운 칼날을 없애야 합니다.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온유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라도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2022년 9월 10일
(음력 8월 15일)

2022년 표어 | 쌓아두신 은혜 (시31:19)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시온영광교회

전주시 덕진구 초당길22 (호성동1가)
(063) 241-1392 <http://zych.co.kr>

[추석 가정예배 순서]

인도 : 가족 대표 한 분

- 신앙고백 다 같이
- 찬 송 588장 다 같이
- 기 도 말 은 이
-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7 인 도 자

-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
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
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설 교 “사랑합니다” 말 은 이
- 기 도 설 교 자
- 찬 송 570장 다 같이
- 주 기 도 다 같이

■ 찬송가 588장 _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2. 너는 새를 보라
3. 너는 새를 보라
4. 너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너는 새를 보라

■ 찬송가 570장 _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